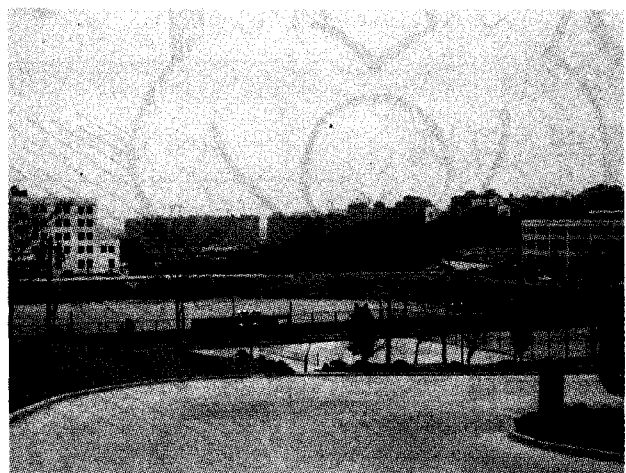




▲지하2층, 지상9층 총 4천 3백여평의 규모로 지어질 교양강의동 부지

교양강의동 5월 10일 착공

사유지 매입 마칠, 40일 지연

수원캠퍼스 관리과는 교양 강의동 착공일을 오는 5월 10일로 확정·발표하였다. 공정표에 따르면 건축설계는 이미 끝난 상태이며 25일 자체공사로 시행하는 토공사, 다음달 4일 시공자 선정, 5월 5일 계약 및 공사발주, 5월 10일 기공식 및 공사 착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선관과 외국어대 사이(사진참조)에 지하 2층, 지상 9층 총 4천 3백여평의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공사는 당초 4월초 착공하려 했으나 80여평의 사유지 매입과정에 있어 마찰을 빚어 40일간 지연되었다. 이에 관리과 박남규 주임은 “지주의 무리한 조건제시로 땅매입은 결렬되었다”라며 “현재 계획대로 시공한다면 교양강의동의 일부가 외국어대 건물에 가려질 듯 하다”고 덧붙였다. (최진원 기자)

교시 탐

주인으로 바로서기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장본인, 히틀러는 ‘우매한 국민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며 자신이 현명한 독재자가 될 것을 자처했고 결국 독일 국민은 그를 광적으로 신봉했다. 또한 프랑스 국민은 피비린내 나는 혁명을 통해 어렵게 얻은 자유를 ‘나폴레옹’이라는 야심가에게 헌납하고 말았다. 이렇듯 역사속에서 다수는 자율적 의지를 부당스러워 했고 자신들을 이끌어 줄 그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다. ▼서울캠퍼스는 지난 1일부터 대대적으로 쓰레기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캔만 따로 분리하고 있지만 각 단대별로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을 배치할 예정이다. 수거는 일반 쓰레기와 소각 쓰레기, 캔 병류를 각각 검정, 파란, 노랑 비닐 봉지를 사용해 구분하고 일반 쓰레기는 구형에서 판매하는 녹색 규격봉투에 넣어 배출한다. 그리고 소각류와 캔 병류는 각기 소각 또는 매각처리된다. 그의 종류는 끈으로 묶어 각 경비실에 보관한 후 매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쓰레기분리수거는 이미 인권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몇몇 학생들이 활동을 해왔지만 대다수 학생들의 비협조로 인해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 결국 인부위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쓰레기통에서 재활용될 만한 것을 수거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축소했다. 다행히 쓰레기 분리수거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니 늦게나마 분리수거 활성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 주체가 학생이 되지 못했음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 학생 스스로가 풀지 못하고 학교측이 시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결국 학생의 자주권을 저당잡히는 처사가 아니겠는가. ▼자유는 그것을 누릴 자격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다. 학생이 만들어 가는 대학을 바라다면 학교내 산재해 있는 문제 또한 우리의 의지를 필요로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제됐을 때 학생이 진정한 대학의 주인으로 바로 설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 책임의식이 생기게 때문이다. (강재은 기자)

한의대 제적생 전원 복직

교육부 제적생 재입학시 정원초과 하면 제재조치

2백명 결원 있어 교육부 방침 영향 없을 듯 학교

지난해 5월부터 한약 제제시험 무효를 주장하며 수업을 거부, 제적처리된 한의대생 81명 전원이 복직된다. 지난 2월 28일 오후 5시 조정원 총장, 송병기 한의대 학장, 한의대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무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이번 결정에 대해 학교측은 “제적된 학생들이 개강 이후 꾸준히 강의를 듣는 등 복직의지를 분명히 해 교육적 입장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제적생을 재입학시켜 정원이 초과된다면 이는 학생정원령을 엄연히 위반한 처사”라며 “법을 위반했을 때는 행정 및 재정적 제재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문제에 대해 서울캠퍼스 유승희 교무처장은 “우리 학교의 경우 다른 대학과는 달리 한의대 일반 편입이 불가능해 약 2백명의 결원이 있었으므로 교육부 방침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학교측은 제적생들에게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대다수 제적생들이 등록을 마감한 상태이다. (강남이 기자)

진로특강 통해 학점취득 가능

재학중 8회 수강하면 1학점 인정

이번학기부터 취업정보실에서 주관하는 ‘인성교육 및 진로특강’을 수강하면 학점취득이 가능하다.

교육계, 기업계, 종교계, 언론계, 문화계 등 각계 인사들을 초청, 진행하게 되는 이번 특강은 올바른 진로설정을 통해 학문을 성취하고 인격적으로 완성된 인재를 양성코자 기획하게 되었으며 재학중 8회의 특강을 수강할 경우, 1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서울캠퍼스는 23일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있을 연세대관 총장 송자 교수와 이대 국문과 이어령 교수의 특강을 시작으로 교보생명 이종호 부회장과 기사서비스 유영길 사장, 삼성항공 안복현 부사장이 5월 7일에 크라운관에서 강연하고, 조영식 학원장이 5월 21일에, 대우전자 배순훈 회장과 FILA 전문경영인 윤운수씨가 6월 4일에, 소설가 최인호, 박완서, 박경리 씨가 9월 10일에, LG를 구분부 회장과 한글과 컴퓨터 이찬진 사장이 10월 8일에, 오웅진 신부와 법정스님, 가나안 농촌학교 김법일 교장이 11월 5일에 크라운관에서 각각 강연한다.

한편 수원캠퍼스의 경우 30일 제과대 시청각실에서 개최되는 1차특강은 ‘21세기 지구촌 변화의 물결과 한국의 진로’라는 주제로 강영훈 전총리가, 5월 13일에는 ‘외교관이 보는 한국통일과 국제관계’라는 주제로 공로명 전외무부장관이, 5월 28일에는 조영식 학원장이 강연할 예정이다.

수원 캠퍼스 연구처는 지난 31일 폴라로이드 필름레코더를 구입했다. 공대 1층 연구실험지원센터에 설치한 이 기자재는 교수연구의 효율화 증대와 연구결과 발표를 권장할 수 있도록 발표용 칼라 폴라로이드 즉석 제작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수원 중간고사 21일부터

수원캠퍼스 수업과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를 중간고사 기간으로 발표했다. 이번 중간고사 기간은 교양과목 중심으로 오후 5시 이후에 편성되었으며 전공과목은 학부·학과장의 재량에 따라

제5기 한총련 의장 강위원 군

경인총련 의장 이병언군 당선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제5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의원대회’에서 제5기 한총련 의장으로 전북대 강위원 총학생회장이 당선되었다. 한총련 전체대의원 1천7백43명 중 1천45명 투표로 같이 출마했던 고려대학 지현찬 총학생회장은 1백26표를 얻었으며 부산대학 백태현 총학생회장은 37표, 전북대학 강위원 총학생회장은 8백56표를 얻었다. 이번 한총련 선거는 경선방

식으로 작년 고려대, 연세대 총학생회장이 출마한데 이어 두 번째다. 한편 경기인천지역총학생회연합(경인총련) 제4기 의장으로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장 이병언(건축 4)군이 당선되었다. 지난 3월 22일 수원캠퍼스에서 열린 경인총련 대의원대회에서 실시한 찬반투표 결과 이군은 총1백29표 중 찬성 1백25표, 반대 2표, 무효 2표를 얻어 결정되었다. 또한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96년도 사업평가와 97년도 학자투쟁 총노선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폴라로이드 필름레코더 구입

수원 캠퍼스 연구처는 지난 31일 폴라로이드 필름레코더를 구입했다. 공대 1층 연구실험지원센터에 설치한 이 기자재는 교수연구의 효율화 증대와 연구결과 발표를 권장할 수 있도록 발표용 칼라 폴라로이드 즉석 제작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사·교

제8회 시문에 현상 공모전

재학생 대상...오는 25일 마감

대학주보는 우리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8회 시문에 현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시문에 현상공모전은 명실공히 경희문단의 새로운 인물을 배출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년간 한국의 문단을 이끌어 온 경희문단의 오늘을 가능할 수 있는 공모전에 재학생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출품자격: 양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공모부문: 시
- ▲작품접수: 1997년 4월 1일~4월 25일
- ▲접수처: 대학주보사 편집실(서울: 961-0095, 수원: 280-2056)
- ▲입상작 발표: 1997년 5월 12일자 대학주보 지면을 통해 발표함
- ▲시상내용: 당선작 1편-상금 1백만원, 상패가 작 2편-상금 30만원, 상패 입선작 2편-상금 15만원, 상패
- ▲기타: 모든 입상작품은 대학주보에 귀속됨

시상식, 낙선작 반환에 관한 사항은 입상작 발표시 알릴 예정입니다

대/학/주/보/사

1997창학반세기 경희대학교 학내회정



경희발전기금 참여안내

- 대상: 경희가족(동문,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독자가, 기업, 기관, 단체 등
- 기부형태: 현금, 주식 및 유가증권, 기타자산(부동산, 산, 기타), 도서자료, 실험실습기자재 등
- 일시 및 분할 납부: 일시 또는 월납금으로 참여. 개인 또는 단체별(예: 직장/지역동문회 등) 각 학과/대학(원)별 특정목적기부금으로 지정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발전기금 납부방법: 약정서에 기재한 금액의 온라인 납부. 현금을 출원하고자 할 때에는 희망하는 금액을 일시에 출원하거나, 출원금액을 약정하여 원하는 횟수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인 경우 1회분 불입시 도장을 가지고 해당은행에 가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우편환 또는 전신환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연락을 주면 직접 찾아 뵙겠습니다.
- 급여공제(교직원에 한함) 가능
-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자산 출원은 개교 50주년사업회로 연락주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 유산상속이나 기타 소유 부동산(건물·토지 등)을 헌납할 수 있으며, 모든 법적수속과 관련비용은 학교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무통장 입금(예금주: 경희대학교)
국민은행 010-01-0618-642(한일은행) 070-084146-13-101
서울은행 17301-2710-209 외환은행 131-13-10336-6
농협 031-01-396711 평화은행 044-01-001-286
우체국 012336-0025566 서울은행 17308-9505323

※서울은행은 경희사자재기금기금

경희대학교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

(130-150)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 961-0831-2 FAX: 961-0808